

이렇게 기도하라! - 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마태복음 6장 9-13절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올리버 웬델 홈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하늘만 생각해서 이 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든 하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려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이 때로는 위선적으로 때로는 독선적으로 비춰졌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지만, 우리의 많은 신앙의 양태들이 너무나 하늘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스카이 제서니 [예수님의 진심] 그림 p. 132)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소망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비전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고통도 참고 악한 일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고고하게 살지 말고, 그 하늘의 비전이 이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처일 뿐이다’라는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경멸하면, 세상도 우리를 경멸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지로 보내주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순서가 놀랍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친밀하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품어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악을 경험하고 악한 사람들 속에 둘러 쌓여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의 쓰라린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을 떠나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며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거룩한 영성을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거룩을 이루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구들과만 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원수들 한 가운데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세상적인 것들이 널려있는 것이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함과 무질서를 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원수들이 사라지기를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함축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겐세마네의 기도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26장 36-3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겐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자 모세가 중보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인용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는 죄악을 목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만일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으니,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까?

사실 이러한 어지러운 문제에 대하여 19세기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자 A. A. 호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날짜를 아실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답은 ‘그렇다’이다. 하나님이 그 날짜를 정하셨을까? 그렇다. 우리가 그 날짜를 바꿀 수 있을까?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음식을 먹는가? 살기 위해서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 그렇게 먹지 않아 죽으면 그 날짜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사망일일까?”

호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한다.

“쓸데없는 질문은 그만하고 그냥 먹으라. 먹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법이다.” (스캇 솔즈의 [기도 먼저] 중에서)

먹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길인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다. 우리가 정해진 죽는 날짜를 바꿀 수 없지만 살아있기 위해 오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음식으로 인해 살아 움직이게 설계하신 것처럼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모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교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까? 그렇습니다.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향한 변경 불가한 계획이었기 때문일까? 그렇습니다.
3.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모세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간청했기 때문일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특정한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붙들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심각한 오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며 기도할 이유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한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가는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구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